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연암중 1-2 김도연

사각사각, 분주히 손을 움직여 종이를 빼곡히 채운다. 저번 주 받은 편지에 쓰인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저께쯤 도착했을 내 편지에 답신이 오늘이 되도록 오지 않는다. 이름도 모르는 이가 나를 이리 애를 태우고 다시금 자그마한 기대를 하게 만든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그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간다. 물론 주소지는 적지 않았다. 이름도 모르는 이의 주소지 따위,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저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누군가 우체통에서 꺼내가 읽고 답을 보낸다. 똑같은 우체통으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아날로그 형식의 소통은 한 달 전, 우체통에 꽂혀 있던 편지 한 통으로 시작했다. 여름이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 부는 그날 집 앞 낡은 우체통에는 편지가 있었다. 우체통의 쓰임은 나의 14년 정도의 세월 중 몇 번 보지 못했다. 당연히 광고나 통지서가 들어있던 적은 여럿 봤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에 쓰이는 아기자기하고 다소 유치한 편지지가 들어있던 적은 손에 꼽았다. 무심코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받는 이 : 이 정’. 내 이름이 적힌 편지지에 순간 온몸이 긴장되었다. 내 지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데다 불쑥 편지

를 보낼 만큼 낭만적이지 않은 이들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발신인 이름이 비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 덜 성숙한 내 머리로는 이 편지를 엄마에게 전달하자는 생각이 섰다. 엄마에게 주기 전, 나도 이 내용 한 번은 훑어봐야 했다. 원래부터 궁금한 건 알아내 봐야 하는 내 성격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모른다면 오늘 밤 꿈에서도 편지가 나올 판이었다. 편지를 밀봉한 토끼 스티커를 떼내어 조심스레 편지지를 꺼냈다.

공손한 인사말로 시작한 편지는 예상외로 밝은 내용이었다. 우선 위험하거나 협박이 담긴 유해한 물건은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 하지만 좀처럼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누가 보낸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아무래도 수상한 편지에 급히 가방을 열어 필통에서 집히는 아무 펜을 들고 ‘너 누구데?’라는 짧은 물음을 적었다. 말투가 그리 상냥해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적힌 내용이라곤 인사와 돼도 않는 아는 척이다. 나를 잘 아는 사람, 등골이 서늘해졌다. 스티커라도 붙은 게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다. 아무렇지 않다며 애써 자신을 안심시키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후 우체통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파란색에 덕지덕지 스티커가 붙은 편지였다. 괜스레 짜증이 났다. 하교 후 내 이목을 집중시킨 저 편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번 편지에는 적혀 있을 거라는 의미 없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우체통 앞으로 옮겼다. 단숨에 편지를 꺼내 읽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제법 예의 있는 높임말로 쓰인 내용은 또다시 인사말과 곧 다가올 시험에 대한 응원이었다. 평범한 내용을 끝맺는 문장 밑에는 ‘우



체통에 답신을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가져가 읽어보고 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고 몇 초 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못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저번 편지에 내가 써놓은 물음을 읽었다는 것이다. 아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며칠 새에 우체통을 다녀갔을 것이고 내가 적은 문장을 읽고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놓았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역시 편지를 엄마에게 쥐버릴 걸 그랬다.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답장을 달라 했으니 반드시 우체통을 다녀갈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한번 답장을 적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들어가 가방을 방 한편에 던져두고 공책을 찢어 연필을 들었다. 받은 편지와 상반되는 공격적인 말투로 여러 질문을 적기 시작했다. 이름부터 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편지를 보낸 목적은 무엇인지 등등 궁금한 것들을 적었다. 그리고 괜스레 몰래 현관문을 열고 나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사흘 뒤, 우체통에는 편지가 또 꽂혀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꺼내 들었다. 새하얀 편지봉투를 조심조심 열어 편지지를 꺼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가슴은 세차게 뛰고 마른침이 넘어갔다. 정말 이 편지 하나면 그동안 머릿속을 계속 맴돌던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편지를 읽은 내 표정은 실망감으로 물들었다. 점차 온몸이 차게 식으며 마치 찬물을 뒤집어쓴 것 같았다.

편지에는

‘제게 궁금한 것이 많군요.’

감사하네요.

하지만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라는 단 세 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뭘 기대한 건지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손에 들린 편지를 찢어 우체통에 처박았다. 이제 우체통에 신경도 쓰지 않을 거다.

어느새 간밤이 지나 이를 닦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또다시 등 쫓길을 나섰다. 어제 일 때문인지 우체통에 시선이 갔다.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나 발걸음을 더 빨리 재촉했다. 등교 후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편지 생각이 불쑥불쑥 끼어들었다. 4교시, 국어 시간 도중 조용히 공책 한 장을 찢어 거기에 꼬적였다. ‘자세한 건 안 물어볼게. 넌 날 알아? 왜 나한테 편지를 보내?’ 아침에만 해도 우체통에 애먼 화가 났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는데 안일하게 편지를 찢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알아야 한다. 그런 합리화를 이어 나가며 주섬주섬 편지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학교 후 우체통에 들어있는 찢어진 편지의 잔해들을 꺼냈다. 그 대신 가방에 들어있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비장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밤을 거의 뜯눈으로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우체통에는 기다리던 것이 들어있었다. 웬일인지 하룻밤 만에 편지가 와있었다. ‘편지를 보내는 이유요? 저는 한글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한글이라는 언어로 적힌 편지는 저에게 아주 큰 행복을 주어요. 그리고... 많이 궁금하신 듯한 당신과 저의 관계성은 당신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일단 저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아 참, 저는 전혀 당신께 해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편지를 다 읽고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정말 아무 감정도.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 색깔 예쁜 편지지 하나를 찾았다. 찾은 편지지에 연필로 한 자 한 자 꺾꺾 자신을 소개했다. ‘어디까지 아는데?’ 마지막 문장을 쓰고 연필을 내려놨다.

